

## 제2회 재외동포NGO활동가 대회 (2005년 11월 1일 화 ~ 4일 금)

- 주최 : KIN(Korea International Network)
  - 주관 : 제2회재외동포NGO활동가대회추진위원회(10개 단체)  
동북아두레공동체운동, 동북아평화센터, 동북아평화연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남대학교세계한상문화연구원,  
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타운신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한국청년연합회(KYC),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 후원 : 재외동포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코리아포커스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활동나눔1-7

## 동포로서 자유로운 고국방문을 기대합니다

유봉순 | 조선족연합회(준) 회장

동포 활동가 여러분 그리고 기타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여러분들이 조선족복지선교센터를 방문하는 당시 많은 조선족연합회회원들이 센터에서 합숙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족연합회준비위원회에 대한 소개를 하지 않아서 섭섭했는데 1년 뒤 오늘에야 비로써 주최 측에서 이러한 기회를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 서 두

지난 88올림픽 끝난 직후부터 우리 중국조선족은 중국의 1978년 이후 진행된 등소평의 개혁개방의 정책과 특히 1992년 한중수교 후 조선족들은 집 거주지를 떠나 대도시와 해외로 빠져 나가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문화 언어 생활풍속이 같은 한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방한 중국조선족은 몇 십만 명에 달하고 현재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들이 20만 명달합니다.

한국정부에서는 역사적 관점으로 조선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조선족을 자기의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외국인 취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중 수교 10여년 조선족도 자연스럽게 한국 왕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10여년동안 한국에서의 왜 이리 불법체류가 많고 매일매일 불안 속에서 단속을 걱정하며 살아가게끔 했을까요? 자유왕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외동포의 혜택을 받는 동포는 자유왕래가 자연스럽게 되고 있으나 이른바 못사는 동포들은 왕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이란 꿈을 쫓아 조선족들은 좁은 출입국을 뚫기 위해 송출비용을 감당해야하고 출입국과정에서 비 법적, 불법적 행위가 조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족은 한국에 입국해서도 동포로써 신분을 획득하지 못하고 불법 신분 속에서 살다보니 자연스럽게 임금체불, 폭행, 인격모독 등의 인권침해 또한 참고 살아야 합니다.

한국을 방문할 수 없기에 남의 여권 위조하고 민족을 바꾸고 가짜 결혼, 가짜부모, 그리고 목숨을 건 밀입국도 하는 모든 편법을 이용하여 한화 천만 원을 지불하는 경제적 부담을 걸머지고 입국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기꾼들에 피해를 입어 조선족이 주로 거주하는 동북3성

에 약 3만 가정 10만 명이 채무 때문에 땅과 집을 잃고 거리에 나앉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른바 한국조정사기피해인 것입니다. 그들 중 약 200여명 가까운 사람들이 빚 독촉으로 매맞아죽고, 화병으로 죽고, 고통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버린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 조선족연합회준비위원회 성립 및 활동

### 1. 성립

저희 조선족연합회준비위원회는 2000년 4월 23일부터 6명으로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종로구청에서 중국에서 온 조선족만 노점을 못하게 하고, 한국 사람들이 “중국거지들이 왜 왔는가?” 욕설에 분노하여 동분서주하던 끝에 의주로교회 임광빈 목사님의 도움 하에 “우리는 왜서 뭉쳐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서울지역 조선족들을 조직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왜 뭉쳐야하는가?” 하는 전다지를 갖고 서울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찾아다니면서 회원모집을 한 달 동안 했습니다. 모두 빚에 억누리워 돈을 버는데 시급해서 동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심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조직홍보를 했습니다. 노력한 끝에 13명으로 6월 12일에 연합회 첫 수련회를 갖고 뭉치는데 도모되었습니다. 조선족연합회준비위원회는 한국에 체류중중인 중국 조선족 동포들의 단결과 우의를 다지며, 한중 친선을 위해 노력하고 조선족동포들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2000년 12월 31일에 설립 되었습니다.

2000년 10월 15일에는 한국에서 고생하는 조선족을 위해 조선족 복지선교 센터가 설립 되어 조선족 연합회준비위원회와 함께 같은 공간 즉 의주로 교회에서 상담과 모든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족연합회준비위원회는 회칙을 제정하고 실시해왔습니다. 우리는 매주 일요일 모임을 갖는바 많은 동포들이 참가하여 조선족 복지선교센터 소장 임광빈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힘나고, 우리희망이 보입니다. 고생한다 알아주니까 힘나고 많은 학습을하고 정신상태가 건강해졌습니다. 정신상태가 똑바로 되니까 앞으로 나갈 방향이 보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보람이 있습니다.

각자가 원하는바에 따라 분단 활동을 하기도하고, 즉 영어학습반, 역사 학습반 컴퓨터 학습반 등등 활동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조선족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모색하고 바로실천에 옮겼습니다.

우리는 회비를 받아 노인 그리고 환자들을 돕는 사업을 할 뿐만 아니라 바자회를 통해 모인 옷을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세탁기도 없는 연약한 환경에서도 손빨래를 해서 정결하게 손질하여 한 포장에 3만원 운송비를 지불하면서 한국조정사기피해자 가족에게 보내기

도하며 일부는 팔아 장학기금을 마련해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병난 동포들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약 사다주고 전기담요, 쌀, 식품을 보내주면서 위로하는 일도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행동이 많은 동포들을 감동시키고 동참하는 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의 작은 사랑이 고향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큰 희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 2.조선족동포들의 실태 조사

우리의 이러한 활동과 노력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 속에서 생활해야하고 어제 어느 때 손목에 수갑이 잠겨 출국 당할지? 왜 우리는 보고 싶은 부모 형제 자식 볼 수 없는 이산가족이 되어 외로운 살미를 살아야하는지? 고민 끝에 2001년 5월 15일부터 매주 토요일 퇴근 후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임원 확대회를 통해 실태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조선족은 왜 그리도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많은 상담과 조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 1) 잘못된 입국

우리 중국 조선족들은 잘살아보자고 한국행을 선택하는데 자유 출입이 없기 때문에 한국을 입국하는 대부분은 가짜 여행, 가짜사업, 가짜유학, 심지어 결혼하는데 자식포기각서가 있어야 국제결혼 할 수 있었고, 가짜부모 가짜결혼, 목숨을 건 밀입국 심지어 자기 민족까지 바꾸어 한족으로 입국할 수 있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 2).인권침해

입국부터 잘못 된 탓으로 각종 인권침해와 임금체불 구타 용설 많아 고통당하는 동포들이 만고도 많았습니다. 중국동포문제를 하시는 임광빈 목사님 김해성 목사님은 등 조선족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앞장서서 싸워 왔기에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심한 것은 법무부 단속반의 비인도적 구타 조선족들 하여금 소름날정도입니다.

3) 불법체류자기 때문에 임금체불문제 너무나 심한 것입니다. 동포들이 대부분 체불임금 당한일이 있습니다. 우리 회원 한분은 500만원임금을 체불당하고도 도둑이로 몰인 적도 있습니다.

4) 산업 재해 문제입니다. 보호 받을 수 있는 신분도 아닌데다 한국사람들의 회피하는 3D업종에서 노동하기에 위험도가 높고 강도도 높은 일을 하므로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고 단지 업주의 배려일 뿐이므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심한 사고일 경우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할 수도 없고, 업주도 계속 부담하기를 피해 고통은 말로 다할 수없습니다.

5) 선인견과 편견적인 대우입니다. 부모의 고향 고국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언어문화 생화 습성 같아 돈벌기 쉽다고 왔으나 중국에서 보다 도 못한 대우에 격분하며 요설과 무시하는 언행은 견디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같은 동포면서도 왜 왔느냐? 누구 오라했는가?

중국으로 돌아가라니.....등 말은 듣게 되면 글세 중국에서도 저이 조선족을 중국으로 오라 한 적은 없습니다. 김약경 김구 운동주 문희칸 등 선조님들 중국에서 오라했습니까? 그러나 우리조상들을 먹고 살기위해 항일하기위해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중국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한국에 와서 자기힘으로 돈벌어가는데 흠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리도 배앞아 하는지? 또 정부에서는 조선족은 중국사람이지 하면 외국인취급을 하는데 대해서 저희는 위치기 쉽니다, 역사 속에 들어가 보시라고 국호는 변해도 만족은 변치않습니다.

### 3. 재외동포법 개정 운동

1999년 9월 국회를 통과한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의 내용을 보면 거소에 관한 조항이 있고 출입국 관리로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고 의료보험 혜택이 있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법이었지만 중대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재외동포를 정의한 제 2조를 보면 1항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라 하였고 2항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자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자 중 대통령이 정한자’라 하였다. 문제는 2조 2항의 동포정의 에 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수립이 1048년이기에 그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재외 동포법 대상에서 포함되지않는것이다. 이법에 혜택을 받지못하는 동포는 200만 명의 중국조선족동포, 50만명의 재 CIS동포, 재일동포중 한국국적을 소유하지 않는 이른바 무국적 또는 조선적의20만명의 동포 그리고 1903년에서 1906년 사이에 하와이로 이주한 5만여명 재미동포가된다.

한국이 나라를 상실하였을 때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서 독립 운동을하여 준 사람의 후손이 중국동포이고 CIS동포들이다. 말하자면 국권을 상실하였을 때 우리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준 사람이 조선족 동포이고 재CIS 동포들이다.

제정된 재외동포법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선족연합회준비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에서 잘못 제정된 재외동포법이 우리의 민족적 권리를 송두리째 뺏아버리고 인권이 사각지대에다 내몰아 내는 것에 반발하여 재외동포법개정 자유 왕래 실시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1)동포법개정을 위해 조선족연합회는 2001년 5월15일부터 실태조사를 하는동시에 동포법개정위원회와 동포법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획적이고 절차있는 동포법개정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 우리는 동포법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고 돌아 와서는 동포법개정위원회 와 추진 위원회에서 힘든 노동을 불구하고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모여서 학습토론을 조직하여 우리의 인식을 높여 투쟁에 앞장서도록 연합회회원들을 홍보조직 해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3) 많은 집회를 했습니다.

2001년 5월 29일부터 정부에 강제추방에 항의하고 한국기독교 백주년 기념관 앞에서 강제추방반대 집회를 하고 많은 조선족들이 처음으로 거리에 나서서 정부에 항의하고 우리권리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수십번 집회를 해오면서 조선족은 어떠한 존조인가를 한국사회다 알리고 우리의 주장을 한국정부에다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집회

7월5일 사직공원에서 진행된 강제추방반대 집회

8월7일 재외도포법개정을 위한 연대회 (우리민족서로돕기)

8월19일 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 강제추방반대 집회에서 우리의 주장은 재외동법 개정하고 자유왕래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서명운동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8월20일 명동성당에서 태순선을 석방하라 집회

9월10일 동포법개정문제 토론회 (우리민족서로돕기) 그 후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기위해 몇만장되는 전단지들을 서울 경기 지역에다 뿌리면서 한국 사회다 조선족을 알리고 동포들을 동원조직 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렸 습니다. 이어서 시위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광화문 앞에서 침묵시위를 하고, 72일간 명동성당 앞에서 법무부의 자진출국반대 운동 농성. 태순선씨를 석방하라 집회

2003년 추석 동포법개정 홍보활동 및 서명운동 4차 되는 농성준비집회 했습니다.

4)재외동포법개정을 위한 기자회견과 인터뷰

동포법개정을 위해 우리는 많은 기자회견도 하고 우리의 주장을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통해 언론에 오르고 사회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5) 2003년 11월15일부터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차디찬 땅바닥에서 84일간 동포법개정을 위한 농성 한끝에 드디어 2004년 2월 9일에 재외동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개정되어 우리는 기쁜 심정으로 환호하고 경축대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와 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우리는 또 9개월간 의주로 교회에서 개정된 동포법 실시를 위한 불법체류사면운동을 진행했고 5000명되는 동포들을 참석하고 4000여명이 사면신청을 했습니다.

6)실려있는 우리들은 평등한 동포 법 실시를 위해 지난 법무부에서 발표한 3.15조치에

대해 적극호응 동원하여 해당회원이 96%는 귀국하고 현재 재입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4.조선족 특색이 있는 각종활동

##### 1)매년 3.8 국제 여성의 날 기념행사 진행

우리는 이 행사를 통해 연합회 여성부에서 발포된 결의문에 따라 가정을 지키고 민족을 지키는 위대한 어머니 되는 호소에 적극참여 했습니다.

##### 2)연변조선족자치주 기념행사 진행

매년 9월3일에 되면 우리는 고향을 기리면서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이루어온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지키고 반전시키는 활동을 진행 해왔습니다.

3)1919년 3월13일 용정에서 일어난 3.13대한민국만세 항일 운동 강의를 경청하고 독립문 형무소를 견학하였습니다.

##### 4) 연합회활동사진전을 진행

많은 동포들에게 조선족연합회준비위원회는 활동사진을 전시하고 회원들의 스스로 나서서 해설하는 홍보활동도 해왔습니다.

5) 매주 일요일에 있는 정기 활동 (영어공부, 역사공부, 노래교실, 컴퓨터공부 센터에서 봉사활동 등)

##### 6)외국인 노동자와 함께하는 축구 한마당

##### 7)문화를 사랑하는 재단와의 연합공연(센터에서)

8)매년 12월 25일 종교와의 연대활동 재외동포법개정을 위한 크리스마스 조선족 축제 한마당

#### 5.현재하고 있는 활동 및 금후방향

##### 1)재외동포기본법제정을 위한 학습과토론

재외동포법기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참석하고 회원들에게 자료를 나누어주고 주일모임에서 학습토로하면 왜서 재외동포법기본법을 제정해야하는가 인식을 높여가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2)편법으로 입국한 동포들의 합법화문제 해결.

정부 3.15조치에 따라 많은 동포들의 부분적으로 문제해소는 되었지만 몇만명달하는 편법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아직도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합법화를 실시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문론 법무부에서는 이 사람들은 중 범 죄자에게 우리가 법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을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도 보건대 도리가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이러한 집단적인 중 범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선족외 또 있습니까? 원인제공은 누구입니까? 장보는 바라 동포법을 집행하지 않는 외교통사부와 법무부입니다. 법과 역사에 신관받을 자는 바로 그들입니다. 바라건데 조선족문제를 반드시 역사적 관점으로 푸러야한다고 믿습니다.

3)한반도 수놓이 채권을 해결하는데 힘써왔다.

4000만원을 후원받아 동포들의 채권의 60%를 해결하고 40%는 해결하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의 의지를 담은 한반도 수놓이 지도를 후원 판매하는 일이다.)

4) 동포 김송학씨 2차 수술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5) 재입국회원들에 대한 등록 그리고 그들의 입국 후 각종 활동 진행 준비.

6) 각종상담과 봉사활동 (일자리 인금체불 입시주숙제공 가족와의 화상채팅)

7) 연합회 총회 준비

맺는 말

앞으로 조선족이 한국과 중국의 가교가 되어 할 수 있는 역할, 남북관계에서 알게 모르게 수행하는 교량의 역할 등, 조선족만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끝으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생각하며 중국조선족동포들은 결국 한민족 공동체 형성, 남북통일 세계화로 향한 동북아 진출 등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정부와 법무부는 조선족동포들과도 더불어 살아가는 정부되기를 바람에서 조선족동포들에게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하는데서 벗어나 동포 증 발급하기를 기대합니다.

재외동포활동가 여러분 저의 요구가 실현되도록 함께해 주기를 바라면서 재외동포기본법이 하루속히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